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로선과 정책관철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노력적 선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성대히 경축한 환희와 격정을 안고 당대회 결정정령에 삼각같이 펼쳐 나갈 가운데 어머니당 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로 미련된 5,000t급무역짐배 『자력』호가 진수되었다.

우리 당의 자강력제일주의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표시하며 훌륭하게 건조된 무역 짐배는 적세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박을 통해 단호하게 짓부시며 오직 자기 힘만을 믿고 일어서 당의 결심과 구상을 무조건 실천해내고자하는 평화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정과 자력경쟁의 원력, 주체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주공무전한 창제력이 애인과 귀중한 창조물이다.

나라의 해상운수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자력』호가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조된 것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용대한 목표와 부정강행을 실천하기 위한 한가한 무기기 차강력이며 자강력의 높이이자 국력의 높이, 번영의 높이라는 철리를 응변으로 확증하고 있다.

5,000t급무역짐배 『자력』호 진수식이 15일 평남해수리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同志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이 진수식장에 모셔져 있었다.

진수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태양광위원회를 특수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판과 『백두의 혁명정신』, 『당정책옹용전』, 『자력자강』 등 글판들이 진수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진수식은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등록, 내각부총리 일월옹동지와 관계부문, 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진수식에 참가하였다.

강종판류해운상의 전수사에 이어 토본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리운 행운을 향해 친구처럼 대화하는 듯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였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자강력이 낳은 귀중한 재부

5,000t급무역짐배 『자력』호 진수식 진행

로 진조한 5,000t급무역짐배 『자력』호 진수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끌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오늘의 진수식은 나라의 해운업발전을 위하여 끄고와 심혈을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현신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기상과 본마로 『CNC플라즈마접착기와 강철포끼기를 비롯한 생산과 기술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창조한 5,000t급무역짐배이름을 『자력』호라고 명명해주시는 코나큰 응원을 틀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비량정신, 외면연마반의 모든 부문공

을 눈부신 현실로 꽂아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000t급짐배를 건조할 때 대한 파업을 제시하시고 진조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달마다

당의 사상파 의도를 접사원들이는 길에 해운업발전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해운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수령의 윤리관, 혁명정신, 탄성적 육용위에 한 사람같이 떨어나선데 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비량정신, 외면연마반의 모든 부문공

준비사업이 짧은 기간에 끝나고 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하가전단계까지의 선박건조

목표를 달성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였다.

해운판례국의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

들이 자체 보강대책을 앞세우는 한편 모든

공장에서 기술적요구와 해사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도 질비건조속도를 높일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리운 행운을 향해 친구처럼 대화하는 듯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였다.

해운판례국의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

들이 자체 보강대책을 앞세우는 한편 모든

공장에서 기술적요구와 해사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도 질비건조속도를 높일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리운 행운을 향해 친구처럼 대화하는 들판에서 그들은 은근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

을 깊이 새겨하고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나라의 해상을

수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운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이름을 『자력』호라고

명명해주시는 코나큰 응원을 틀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례 같은

각종 기구장비들을 풍기사관장을 맞게 차례로

보장하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지역

획대식조립방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

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배전조기임을 알당

길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그들은 험난해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부

장관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나라의 해상을

수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운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이름을 『자력』호라고

명명해주시는 코나큰 응원을 틀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례 같은

각종 기구장비들을 풍기사관장을 맞게 차례로

보장하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지역

획대식조립방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

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배전조기임을 알당

길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그들은 험난해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부

장관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나라의 해상을

수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운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이름을 『자력』호라고

명명해주시는 코나큰 응원을 틀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례 같은

각종 기구장비들을 풍기사관장을 맞게 차례로

보장하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지역

획대식조립방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

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배전조기임을 알당

길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그들은 험난해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부

장관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나라의 해상을

수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운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이름을 『자력』호라고

명명해주시는 코나큰 응원을 틀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례 같은

각종 기구장비들을 풍기사관장을 맞게 차례로

보장하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지역

획대식조립방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

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배전조기임을 알당

길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그들은 험난해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부

장관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나라의 해상을

수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운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이름을 『자력』호라고

명명해주시는 코나큰 응원을 틀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례 같은

각종 기구장비들을 풍기사관장을 맞게 차례로

보장하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지역

획대식조립방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

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배전조기임을 알당

길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그들은 험난해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부

장관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나라의 해상을

수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운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이름을 『자력』호라고

명명해주시는 코나큰 응원을 틀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례 같은

각종 기구장비들을 풍기사관장을 맞게 차례로

보장하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지역

획대식조립방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

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배전조기임을 알당

길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은근하였다.

그들은 험난해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부

장관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나라의 해상을

수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운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이름을 『자력』호라고

명명해주시는 코나큰 응원을 틀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박수를 치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례 같은

각종 기구장비들을 풍기사관장을 맞게 차례로

전당, 전민이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 당대회정신으로 틀튼히 무장하자

심장에 새길 때 목표도 방법론도 나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전역공업성 일군들을 향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하여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 가전설의 최종성과를 염려나갈 일념으로 미용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때처럼 성에는 혁명적 학습열풍이 세차례 풀이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적으로 다시 한 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 문헌들을 통하여 당 제7차대회를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풍랑구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 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자자구 구세기는 일군들의 기술은 마냥 탑이었다.

전역 문제를 주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철학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이라고, 5개년 전략수행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역성산목표를 반드시 침행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나리의 전역 기관동무를 비롯한 화력발전부

한 파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밟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전력공업부문을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는 지름길은 원수님의 강령적자리와의 친수를 자기의 뼈와 살이 되게 새기고 한치의 드럼도 없이 험처의 힘풀하는 것입니다.』

혁명적 학습열풍 속에서 전역 증산을 위한 목표도 방법론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자리에 접하면 그냥 일군들에서 터친 성당위원회 쇠퇴의 암전성을 보장하는데서 거듭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수력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철부하여 노력하는 학습을 진행하였다.

성일군은 사무실에서는 물

론 출퇴근시간, 짐시간에도 시

간 짧은 시간, 짐시간에도 시

간 짧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언제나 당원이란
는 자각을 가지고 당원의 영
예를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원은 선봉투사자
다. 당의 위엄에 충직한 일을 행
세하고 스스로 당에 들어온 그
남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
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멀시통무의 험길만을 걸고
걸으며 일사 한달의 모래길로
루프진대도 대 바탕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살며
투쟁하는 사람이 당원이다.

이땅의 어디에서나 만날수
있는 그려한 당원들 중에는

당원의 삶은 무엇으로 값높이 빛나는가

김책수산사업소 작업반장 윤정숙동무

40여년을 물고기재배를 공부
문에서 일하고 있는 김책수산
사업소 작업반장 윤정숙동무
도 있다.

윤정숙동무가 당원의 영예를
지닌 것은 50대 나이를 눈앞에
바라보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이었다. 그때로부터 작업반
을 활성화하고 사업소를 일파세
우기 위하여 스스로 투자와 점
을 지고 달려온 그의 천진적인
투쟁모습은 당원의 삶은 무엇으로
값높이 빛나는가에 대하여 다
시금 가슴깊이 새겨주고 있다.

당원의 자각—멸사복무

지금으로부터 13년전 12월의 어느 날 김책수산사업소 평
통사업반에서는 당세포총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윤정숙동무의
입장을 심히 하는 회의였다.

17살 꽃나비처럼 사업
소의 물고기재배로 사회생활
의 첫걸음을 떠는 그날부터 언
제나 사업반에 웃음을 끄어주고
자기의 부분도면도 그리고 부
족을 끌어들이자기의 결심을
하고 헌신적인 자각을

그들이 잘하는 물고기재배를
않아, 그 물고기재배 우리가 받아
서 금동시 채우고 맹동서 장도
태주면서 배우며 일할줄 알았던
우리 작업반에서 보장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당원들에게 물었다.

그의 결심에 작업반의 당원
들 모두가 호응해 나섰다.

그날 그는 작업반에 글동설
비부터 갖추어놓으니 5000kg
평동제작과 1500kg으로
늘어가 위한 구체적인 자천을

짜고민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물을 들여보며 초급당일
근인 윤정숙동무는 우리에게 이
렇게 말하였다.

『바로 그때 제가 사업소초급
당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시기
에도 일터를 떠나지 않고 끝
한 힘으로 윤정숙동무의 일당정원을
지지하며 당원들이 손을 끌 때 그
는 두물을 눈물로 절이며 심장
의 평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

(이미 지는 날까지 당원의 본
분을 더해가리라.)

이렇게 당원생활을 시작한 그는
설탕후작업반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는 작업반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며 물고기재배
방법으로 단위로 일관을 만들
기 위해 당원들이 일관으로
나갔다. 그는 그에 안타까
운 심정을 머금었습니다.

사업소에는 물고기재배를
줄을 수 있는 한쪽에 물고기
를 빙어하고 맹동제작을 전문
으로 하는 수산사업소로 전환
되었다.

1만 수천원대 평형가공모션을
파수천금운반선들을 모두 다
른 단위에 넘겨준 사업소에는

(임당할 때 나는 당조직 앞에
서 이렇게 맹세했더니!)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관리소
의 김일성회장원회원인 군인
김경남동무가 우리에게 백두산밀
영마을의 정양소년들이라고 하며
두 학생을 내세우는 것이다. 벌
써 7년째 겨울방학이면 백두산밀
영학교집에 성의껏 마련한 지
침을 자고 앉아온다. 학생들은
방학때마다 이집에 오는 그들의
방을 찾고는 그들이 머물렀던
방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귀전에
는 초급당일준이 이야기를
꺼운 심정의 도로이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이렇게 들이켜야 하는가?...)

아니다. 나는 당원이다. 해결
방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임당할 때 나는 당조직 앞에
서 이렇게 맹세했더니!)

여주여야 합니다.』

피청총, 리금충학생들을 만나
는 파경에 우리는 조국의 미래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가꾸어진
가장 풍요롭게 물려날수 있다
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피청총, 리금충학생
들이 아닌 우리 후대들이 백두
의 넓을 정신적 기둥으로 심
여주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청총이네 형제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피청총, 리금충학생
들이 아닌 우리 후대들이 백두
의 넓을 정신적 기둥으로 심
여주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청총이네 형제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물고기재배를 찾는
경우 청총이네 형제는

는 오래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
게 하였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의 일생
에서 첫 정치생활이다. 소년단의
들은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백두산밀영학교집에 청총이
는 청총이네 형제가 대 백두산밀
영학교집으로 올려오기 전에 당
원 윤정숙의 당시방침에 대해
기억해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숙동무는 당조
직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유신》독재의 암흑기를 몰아온 군사쿠데타

정치를 하자면 히틀러와 같은 무자비한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5·16 군사쿠데타로 남조선인민들이 피흘려 생활한 민주화의 열매를 빼앗아 죄악을 시대를 펼친 《유신》독재자들이 내뱉은 혐오인 것이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가 유혈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남조선의 군사방해들이 4·19 민중봉기 이후 박트럼 민주화의 기운을 파괴하고 군사화를 가져왔던 일상화하고 《정권》을 강탈한 유팽 못할 멍쇠사건이다.

외세와 죄악독재가 없고 민주화된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염원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 피승만역도의 독재통치를 반대하여 광활한 무정을 벌여왔다. 반미지주, 반북재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주행은 1960년 4월 민민봉기로 정점에 달았다. 주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군함없는 행정에 의해 마침내 피승만독재 《정권》은 무너졌다.

하지만 미국은 새로운 철민주주, 군사파장방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남조선에 조성된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사회를 침해하는 죄악독재에 의해 박정희를 군사쿠데타로 내몰았다.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의 꿈은 여지없이 사라져버렸다.

박정희는 해병대와 공수단을 내몰아 불의에 권력을 강탈하고 《구부지자》가 원범을 무시한 비밀적인 수단이나 탄압적인 절차는 필요 없다고, 대신 떠나는 남조선에 대한 남조선역에 《미상계암령》을 선로하였다. 《국회》는 해신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집회 및 파업 등이 금지되었던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 강조

세계 전보적인 정당지도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출연하여 조선인민의 존엄과 존속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속진과 속하편지를 통해 한글 같이 위대한 김 일승, 김 성지, 김 시, 김 정일, 김 일진에게 찬장을 하시고 명도하여 오신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배우는 한원로를 이끌어 민족과 국가를 만방에 펼친데 대하여 친한 표시하였다.

예우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조선인민을 자주적인 민으로 키워주시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힘 있게 전제시키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同志에게 국제주의의 정의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도이월란드공산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김정은동지에게 진심으로 되는 전투적인 인사를 드린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일상단결되어 사회주의의 위엄을 완성하기로 고민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후생은 꿈을 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부 회사회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만족!

스위스단체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조선인민의 후생은 꿈을 품을 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만족!

공동성명 발표

사회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김정은동지의 활약한 영도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조선인민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만족!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호소

세스포드통령 밀로슈 제3만이 9일 열린 협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호소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만족!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호소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호소